

“갈라서더라도 자녀와는 같이 살자”

美 화 성 부 이 혼 부 부 만 다

「파도」아이「상처」주려 「김기이」로 동거

현재 국내에서 상영중인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이혼과 함께 아이들의 양육권을 부인에게 빼앗긴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싶은 나머지 파출부할머니로 변장해 다시 전처의 집으로 들어가 산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파도, 그러나 함께」라는 기사를 싣고 이같이 이혼한뒤에도 아이들과 떨어지기 싫어 한집에서 사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심리학자인 존 스웨이지와 부인 도로시는 20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한 뒤에도 8년간을 한집에서 함께 살았다. 존과 도로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둘중 어느 누구도 아이와 떨어지길 원치않았을 뿐더러 부모중 한명이 없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떤식으로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

존은 아이들이 어느정도 커 부모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됐을때 집을 완전히 나왔다.

또다른 이혼부부인 존과 제인도 딸과 헤어질수 없어 「파도, 그러나 함께」살기를 결정



영화「미세스 다웃파이어」의 한 장면.

해 외 가 정

했다.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가면서까지 양육권을 두고 법정에서 서고 싶지 않았던 이들은 궁리 끝에 서로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뒤에도 한집에서 살기로 했다.

이들은 한집에서 1층과 2층으로 각자 독립생활공간을 나누어 함께 살고 있다.

주변사람들은 「이럴바에야 좀더 참고 살지 뭐하러 이혼까지 했느냐」고 말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서로가 맞지 않는 상대임을 깨달은 후에는 결혼생활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것. 아이들도 이혼한 부모중 하나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대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부모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도, 그러나 함께」살아가는 부부들은「아이때문에 억지로 냉랭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부모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상처를 오히려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康秀珍)